화상 치료하러 대전행…중증외상 환자 '골든타임' 놓친다

광주·전남 복지부 지정 화상·접합전문병원 없어 타지역 이송 불가피
설립 조건·운영 여건 까다로워 엄두 못내…서울·부산 등 전국 5곳 뿐
산단 노후화로 위험 노출 빈번…정부·지자체, 전문병원 설립 나서야

조선대병원 파업 결의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 지부의 총파업 닷새째인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서 중증화상이나 절단사고 환자들이 골든타임에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상이나 수지접합 전문병원이 광주·전남에 없어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광주·전남 119가 응급 이송한 화상환자는 2021년 236명, 2022년 237명, 2023년 218명으로 연평균 230명에 달했다. 절단환자는 2021년 160명, 2022년 194명, 2023년 180명으로 연평균 178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 화상환자 7명과 절단환자 22명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등 19개 분야에 대해 지정하는 병원이다. 질환별로는 관절·뇌혈관·대장항문·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분만전후 진료)·수지접합·한방중풍·한방척추 등이고, 진료 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 있다.

광주·전남에는 알코올·관절·척추·한방척추·주산기 전문병원은 있으나 중증외상인 화상이나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한 곳도 없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성인게임장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지른 불로 2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각각 2도, 3도의 중증화상을 입었지만 광주·전남에 전문병원이 없어 대전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광주·전남 소재 병원은 중증화상을 치료할 여건이 되지않아 3시간여 떨어진 대전까지 가야 했다.

소방 관계자는 "중증화상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대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장흥군의 한 풍력발전소에서 전력설비를 점검하던 20대 작업자 B씨도 양쪽 팔에 중화상을 입고 충북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7월 20일 여수산업단지 내 한 유연탄 취급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30대 작업자 C씨도 부산지역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절단사고 환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에 전문병원이 없어 수시간에 걸쳐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여수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D씨가 컨베이어벨트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문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 6시간여만에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D씨는 환부에서 괴사가 진행돼 2차례에 걸쳐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소방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경우 광주지역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지만 외상이 심각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지역 전문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증외상의 경우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이 있는데 물리적 거리와 이송시간이 걸리다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산재전문가들은 "특히 광주·전남의 산업단지가 노후화 돼 있어 작업자들이 중중외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병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전남지역에 전문병원이 없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운영 여건 등이 꼽힌다.

화상 전문병원은 4명 이상 외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병상도 60개 이상 갖춰야 한다.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8명 이상의 전문의와 80병상 운영이 설립조건이다. 3년주기로 의료인력,의료 품질 평가, 병상수, 의료기관 인증,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 해야 전문병원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화상 전문병원은 충북 청주, 대구, 부산, 서울 2곳 등 전국 5곳이 전부이며, 수지접합 전문병원 역시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부천, 인천 등 5곳 뿐이다.

이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전문병원 설립과 운영요건을 재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폭염에 1시간 방치돼 사망' 20대 유가족
광주노동청 앞 분향소 설치·무기한 농성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8월 19일자 광주일보 6면〉 유가족이 광주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는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들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고 후 발주처인 전남교육청, 원청인 삼성전자, 하도급 업체 모두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면서 "사고 원인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13일 사고 발생 이후 숨진 A(28)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유가족들은 업체관계자들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가 당일 오후 4시 40분께 에어컨을 설치하다 밖으로 뛰쳐나가 구토를 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이후 갈지(之)자로 걸으며 휘청이다 잔디밭 위로 쓰러졌다"면서 "쓰러진 A를 사측 관계자들이 발견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회사 관계자들은 쓰러지고 1시간 가량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그늘로 옮기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등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특별경보 발령

광주경찰이 카드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 동선 파악 및 피해 자금 추적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는 각 기관의 직원이라고 속여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 20일 피해자 A씨는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확인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이에 속아 1억53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29일사이 다른 피해자 B씨는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으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3차례에 나눠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해 휴대전화 통신을 통제하며 외부 통화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경찰은 각종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URL' 주소를 통해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최근 자주 발생하는 수법을 안내했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4살 여아 오토바이 뺑소니
북부경찰, 불법체류자 검거

오토바이로 4살 여아를 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2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의 한 상가 주변에서 부모와 함께 걷고 있던 B(4)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